

# 스마트미디어융합시대 방송통신정책: 삶의 질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과 정책 PR을 중심으로

박성호<sup>†</sup>

## 요 약

오늘날 SNS를 포함하여 다양한 스마트미디어들의 급속한 보급으로 새로운 스마트융합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스마트융합사회가 아직 효율적이지는 못하다. 특히 장시간의 로딩시간, 비싼 단말기와 이용료, 개인정보의 유출, 스팸메일과 음란폭력물, 잦은 끊김, 접속 장애, 정보격차 등 무수한 이용의 어려움이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당연히 방송통신 정책의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보다 효율적인 스마트융합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역동적인 삶의 질에 기초한 방송통신 정책들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새로운 방송통신 콘텐츠의 개발과 생산 그리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과 프라이버시의 보호 등 지금까지 제기 되는 정책적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주제어** : 스마트미디어, 스마트융합사회, 방송통신정책, 역동적 삶의 질, 접근의 어려움

---

<sup>†</sup> 호남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

논문접수: 2011년 9월 5일, 1차 수정을 거쳐, 심사완료: 2011년 10월 17일

# **Policies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in Smart Media Convergence Age: Focus on the Policy Paradigm and Public Relations Strategies for Dynamic Quality of Life**

Sung-Ho Park†

## **ABSTRACT**

Nowadays, the rapid progress and worldwide use of smart-media(SNS) has resulted in coming of the smart media convergence age. In practice, however, the effectiveness of smart media convergence society is limited by the difficulties of using it, which include accessibility, waiting for loading, clutter, old information, privacy risks, expensive communication, etc. The conquest of these difficulties must be policy target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for high quality of communication life. From this perspective, this paper proposes a new policy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based on the dynamic quality of life for the smart media convergence society. This smart convergence policy will not promote only the development and production of smart media contents but also its stable supply and it will secure the accessibility and privacy. In conclusion, this paper reveals that the components of quality of life are important elements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policies which will eventually lead to the popular use of smart media and enhance its quality.

**Key Words** : Smart-Media, Smart Convergent Society, Policy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Dynamic Quality of Life, Smart Media Convergence Age

## 1. 서론

오늘날 휴대폰과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으로 스마트융합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휴대폰과 인터넷의 기능이 합쳐진 스마트폰은 통신수단으로서 휴대폰 기능과 다양한 정보 콘텐츠를 처리할 수 있는 인터넷의 기능 그리고 신문이나 TV, 잡지와 같은 미디어 기능이 융합된 ‘방송 통신 융합 미디어’이다. 특히 똑똑한 스마트폰의 탄생으로 기존의 휴대폰은 멍청한(stupid) 통신기기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제 스마트폰은 우리의 일상생활은 물론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삶의 과정에서 거대한 변혁의 흐름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소셜미디어(social media)의 핵심적 단말기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스마트폰은 우리의 감각과 지적 능력의 확장을 통해 삶을 보다 자유롭고 더욱 풍성하게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방송 및 정보통신 정책은 방송통신 선진국들의 사례를 모방하여 우리의 환경과 실정에 맞는 정책으로 소화해 왔다. 우리는 이러한 정책적 벤치마킹을 통해 세계 최고의 정보고속도로망 국가로서 그리고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로서 명성을 얻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분야가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함으로써 이제 선진국들의 사례는 우리의 정책모델이 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정보통신에 대한 철학적 기반을 갖추고 이러한 정책 철학적 기반 위에서 새로운 방송통신 정책을 기획하고 실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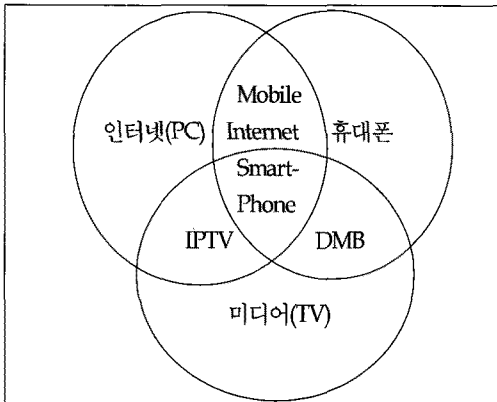
본 논문은 ‘역동적 삶의 질’이라는 새로운 철학적 기초위에 우리 실정에 맞는 방송통신 정책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시 말해 스마트융합시대에 적합한 역동적 삶과 보편적 복지에 대한 정책 철학적 기반 위에서 방송통신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것은 70년대 서구사회가 추구했던 복지국가라는 이데올로기를 넘어 역동적이면서도 동시에 생산적 삶의 질이라는 새로운 철학적 기초위에 우리 문화와 환경에 맞는 방송통신의 방향을 모색하고, 이것을 모태로 한 정책 패러다임을 확립하여 국민과 함께 열어나가는 스마트융합시대의 정책과 PR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주요국들의 방송통신 정책들

### 2.1 스마트융합 방송통신정책의 개념

최근 방송과 통신의 기술적, 콘텐츠적 융합현상으로 방송과 정보통신이 하나의 단일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부처도 정보통신부를 해체하여 기존의 방송위원회와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방송통신위원회가 탄생하였다. 특히 방송통신융합이라는 개념은 방송과 정보통신을 통합하는 개념으로서 다양한 방송 및 정보통신 관련 산업과 서비스를 포괄하는 의미로 쓰여 지고 있다. 이렇게 방송과 정보통신이 융합하면서 새로 탄생한 영역이 방송통신이고,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스마트폰에서 구현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통해 DMB나 SNS서비스, 인터넷 서비스, 화상전화, UCC, 등과 같은 다양한 스마트 웹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다. 이것은 예전의 멀티미디어 서비스보다 더 확장된 개념이며, 다양한 정보통신 서비스와 방송서비스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결국 라디오나 TV방송영역, 정치화상, 동영상(Video), 등과 같은 방송 서비스는 물론 기존의 신문과 잡지의 언론 서비스, 그리고 인터넷으로 구현되는 각종 검색 서비스, 집단지성으로 불리는 위키페디아 등의 융합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것은 온갖 정보, 인터넷, 미디어, 음성전화, 영상 등의 융합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방송 통신 정책은 이러한 각종 융합서비스들을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방송 통신 정책을 스마트융합 방송통신정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사실 스마트융합시대는 과거의 방송통신정책처럼 방송과 정보통신을 개별적으로 다루는 정책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이것은 기존의 방송 서비스가 곧바로 스마트폰으로 연결되고, 이러한 스마트폰 속에서 뉴스와 기사들이 여론화되고 쟁점화되기 때문에 기존의 개별적 방송통신 정책만으로 변화된 스마트융합 현상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기존의 방송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로 변경되었듯이 이제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스마트방송통신위원회’로 개편해야 변화하는 정책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6].



[그림 1] 방송, 정보통신 및 스마트폰의 융합

## 2.2 정보통신 정책의 유형

방송통신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정보통신 정책을 대별해 보면, 크게 미국식 정보통신 정책과 유럽식 정보통신 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5]. 미국식 정보통신 정책은 시장중심주의적 정보통신 정책으로써 주로 컴퓨터와 관련된 정보통신산업 정책으로 특징화된다. 이러한 정책은 애플사나 마이크로소프트사 등과 같은 기업들이 주도하는 시장으로 나타난다. 반면 유럽은 국가주의적 정보통신 정책으로 통신망 산업에 기반한 정보통신 기반산업을 육성하고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것은 통신산업이 주로 국가사업이었고, 또 이러한 정책은 전화망이나 전파망을 활성화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영국의 BT나 프랑스의 FT 등은 국가 기업으로서 정보통신 사업을 전개하여 왔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통신 산업이 확대되면서 유럽의 정보통신사업을 주도하던 기업들도 민영화되었고 이제는 미국식 정보통신 사업과 유럽식 정보통신 사업에는 큰 차이를 찾을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아직까지 미국과 유럽에서 정보통신 정책에 대해 갖는 마인드나 접근 방식은 다르다. 다시 말해 미국의 시장중심적 정보통신과 유럽의 국가 중심적 정보통신 정책은 아직도 많은 정책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사실 이러한 정보통신 정책은 1970년대부터 급속한 발전적 모멘텀을 가졌던 전기통신기술(Telecom)과 정보처리기술(Informatics)의 혁명적인 발전과 이 두 기술의 결합으로 수많은 새로운 미디어들(New Media)이 탄생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과 미디어들은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사회 전

반에 걸쳐 크나큰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대부분의 정보통신 선진국들은 이러한 새로운 정보 통신 기술의 출현과 새로운 융합적 발전 및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강력한 정보 통신 정책들을 수립하였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사회의 정보화” 정책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하였는데 이러한 정보화 정책은 “산업의 정보화”, “국가기관과 기업들의 정보화” 그리고 “가정의 정보화”를 통해 “사회의 정보화”라는 큰 틀 속에서 추진되었다.

이것은 1976년 12월 프랑스 지스카르 데스탱(Giscard d'Estaing) 대통령이 당시 재무장관(총감)이었던 시몽 로라(Simon Nora)에게 정보 처리 기술의 발전과 사회 경제적 변화 요인을 조사토록 지시한 사실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시몽로라는 앙랭밍크(Alain Minc)와 함께 “사회의 정보화”(Informatisation de la société)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서 “텔레마티크”(Telematique)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 용어가 전기 통신을 의미하는 Telecom과 정보 처리를 의미하는 Informatics의 합성어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정보통신의 융합에 대한 최초의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컴퓨터와 텔레커뮤니케이션이 결합된 “컴퓨터네이션”(Communication)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이 미국의 정보통신정책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용어 “컴퓨터네이션”이 정보 처리, 즉 컴퓨터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텔레마티크라는 프랑스의 용어는 전기 통신, 즉 Telecom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서로 다르다. 다시 말해 이 두 용어의 차이는 미국과 프랑스의 정보화 정책에 대한 접근 방식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해 컴퓨터의 보급은 일반적으로 자유시장 경쟁원리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통신시설은 기업이나 상업시설과는 달리 공공적 또는 국가적시설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이것은 결국 미국의 민간주도형 정보화 정책과 프랑스의 국가주도형 정보정책으로 구별되어 질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의한 정보통신과 미디어들의 융합현상에 따라 스마트융합 또는 소셜미디어라는 용어가 보다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고 또 대부분 국가에서 이러한 용어를 정보통신과 미디어의 융합현상을 나타내는 전문용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개의 정보정책의 차이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 미국과 프랑스의 정보화정책비교

구분	미국식 정보 정책	프랑스식 정보 정책
핵심 용어	Communication	Telematique
	Computer+Communication	Telecom+Informatique
특징	컴퓨터 강조	전기통신 강조
정보화 전략	시장주도형 정보화 전략	국가주도형 정보화전략
주요 사례	애플, M/S	BT, FT, DT

### 3. 스마트융합의 사회적 영향

90년대 말부터 대중화되기 시작한 인터넷은 전 세계인들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켜 놓았다. 또 인터넷과 별개의 통신서비스로 발전하던 휴대폰 역시 인류의 문명 자체를 바꾸어 놓았다. 인터넷과 휴대폰이 없는 현대생활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러한 정보통신을 상징하던 인터넷과 휴대폰이 서로 만나 스마트폰으로 발전하였다. 이것은 인류 문명의 대 변혁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보와 통신의 두 단말기의 만남은 인류의 신경망을 구축하고 있던 통신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뜻하는 동시에 그동안 언론 권력의 핵심이었던 신문과 방송의 대변혁을 야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의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블로그 등은 소셜미디어라는 형태로 침투되어, 우리의 삶의 형태를 바꾸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소셜미디어는 기존의 신문과 방송이 하던 언론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상부 엘리트층의 전문가들이 제작하던 기사나 뉴스가 이제는 일반 네티즌과 시민들에 의해 생성되고 동시에 소비되는 프로슈머(prosumer)사회를 촉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언론의 패러다임도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언론은 인터넷 신문, 인터넷 방송에 이어 스마트폰 신문과 스마트폰 방송의 등장으로 또 다른 패러다임의 변화를 맞고 있다. 스마트폰을 통한 언론은 과거의 언론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을 맞고 있다. 이제 신문기사와 방송 뉴스가 시민들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신문기사를 쓸 수 있고, 방송을 만들 수 있고, 영화도 제작할 수 있다. 특히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기사와 뉴스가 전달됨으로써, 언론이 탈 매개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이와 같은 스마트미디어의 등장은 우리의 감각기관에 대한 충격으로 나타난다. 그동안 눈이나 귀를 통해 얻던 기사와 뉴스가 이제 손가락의 활동과 뇌의 활동으로 각성되면서 정보의 소비와 동시에 정보가 생성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기사와 뉴스는 실시간 상황을 파악하면서 그리고 시민들의 반응을 직접 확인하면서 작성된다는 점이 기존 언론과는 차별화된다. 또 이러한 스마트 미디어는 언어에 대한 충격(언어의 단순한 표기법, 생략법 만연 등), 윤리 도덕적 충격(양심의 가책이 없는 공격, 범죄행위, 음란성과 폭력성, 가상공간에서의 무책임성 등)을 넘어 교육의 충격(집단지성, 집단 교육, 평생교육, 비정규교육의 정규화 등)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제 우리사회는 이러한 충격에 대응하는 완전히 새로운 정책과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을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스마트 미디어역시 나름대로의 한계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커뮤니케이션의 신뢰성문제이다. 이것은 역정보, 거짓 여론, 여론조작 등의 언론플레이를 넘어 마녀사냥과 같은 공개적 살인이 난무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선거나 정치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새로운 포퓰리즘 정치를 조장하기도 한다. 더욱이 이러한 현상은 가장 정의로워야 할 법조계에 까지 영향을 미쳐 여론재판이라는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까지 보이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스마트 미디어는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람과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없는 사람과의 정보격차문제에 이어 개인정보의 대량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인터넷 실명제와 같은 정보의 통제와 정보독재의 가능성 그리고 음란성과 폭력성의 난무와 확산 등 부작용과 문제점들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스마트 미디어의 문제점과 한계 그리고 부작용들은 분명히 스마트융합 방송통신 정책들이 해결해야 할 정책 과제일 것이다.

## 4. 역동적 삶의 질의 개념과 요소

### 4.1 역동적 삶의 질의 의미

삶이란 하나의 성과나 기록이 아니라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학술적으로 정의하기란 참으로 쉽지 않다. 산다, 존재한다, 그리고 생활이 전개된다. 어떻게 삶에 질(質)을 부여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흔히 이 세상에는 잘사는 것과 잘 못사는 것이 구별된다. 우리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동경하고 보다 풍족하고 여유로운 삶 그리고 자신이 이루고자하는 이상적 삶을 살고 싶어 한다는 점에서 삶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삶의 질(Quality of life)이라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한 것은 최근이지만 삶의 질에 대한 분석의 기초는 후셀(Husserl)의 현상학에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다시 말해 삶을 변화의 한 현상으로서 파악하려는 시도는 오래전에 시작되었다. 실존주의(Existentialism)에 의하면, 인간은 그의 가치들의 실현에 의해서만 존재한다. 즉 인간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삶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삶의 계획의 실현에 의해서만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삶의 질의 분석에서 우리의 목적은 삶의 질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통계적 지표를 갖는 것이다. 삶의 질의 분석 방법은 환경을 특징화하는 요인들의 무수한 가능성들을 긍정적, 혹은 부정적 어떤 관계율(率)로 삶의 질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을 분석하고 또 삶의 질과 관계된 모든 요인들과 변수들을 수치로 표시할 수 있다. 삶의 질은 이들 요소들 각자(ai)에게 서로 다른 비중을 주는 요소들의 상대적 중요치(ki)를 통하여 보다 정확히 판단되어 질 수 있으며, 또 삶의 질의 구체적 평가와 상대적 비교를 위하여 삶의 양태에 대한 시각적 관점들을 균형시키면서 이것으로부터 수학적 그리고 선적 지수(指數)를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프랑스의 커뮤니케이션 학자 몰(Moles)은 삶의 질을 다음과 같은 수학적 공식으로 표현했다[12].

$$\text{삶의 질(QOL)} = \frac{1}{n} \sum_{i=1}^n k_i \cdot a_i$$

이러한 판단의 유형은 사회적 총체에서 하나의 기본으로 간주된다. 다시 말해 이러한 개체들이 합쳐져서 전체의 삶의 질로 평가될 수 있다. 이것은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평가가 사회 전체의 지수로 취합되어 하나의 합리적인 판단의 기준이 되며 반대로 한 개인의 삶의 질은 이 전체 지수의 평균적인 숫자와 일치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삶의 질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사회적 총체의 전체적 합의(合議)로 부터 계산되고 또 평가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삶의 질의 분석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주관적 방법으로 개인이 환경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여론 조사에 의해 삶의 질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고, 다음으로는 다양한 사회적 지표들, 예를 들면 개인은 얼마의 돈을 벌어 얼마 정도를 쓸 수 있고, 일주일에 몇 시간이나 일을 하며, 여가 시간은 얼마나 되고, 몇 세까지 살며 또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몇 명이나 되는지 등에 대한 다양한 통계 자료를 통해 접근하는 통계적 방법이 있다. 마지막으로 약간 문학적 방법으로 시나리오에 의한 방법이 있다. 이것은 한 개인이 자신의 생활과 삶의 계획에서 부딪치는 문제들과 또 자신의 환경에서 요구하는 욕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통하여 삶의 질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이상과 같은 3가지 분석 방법은 삶의 질의 요소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혹은 질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내용들이며 앞으로 더욱 더 좋은 방법들이 계속 개발되기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삶의 질의 분석에서 환경의 의미는 인간 욕구들에 의해 평가된다. 따라서 보다 면밀한 인간 욕구의 분석이 요구되는데, 우리는 사회학자들이 자주 인용하는 마슬로우(Maslow)의 인간 욕구설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슬로우는 욕구의 총체를 다음과 같은 점진적인 획득의 만족 정도에 따라 그리고 욕구의 지속적인 순서 속에서 서로 대체되는 그룹(群)으로서 분류했다 [11].

- 1) 생리적 욕구: 기초적인 생물학적 욕구(먹고, 마시고, 잠자고, 등)
- 2) 안정과 안보의 욕구: 환경의 보존 욕구(외부 조

건, 난방 장치), 피신처의 안정, 외부의 침입으로부터의 보호

3) 소속의 욕구: 상호 작용(interaction)의 욕구(다른 사람과의 관계, 관계의 질, 소외로부터 탈피, 소속감 등)

4) 존경의 욕구: 외부 세계의 제압에 대한 욕구(지적 호기심, 심미적 경험 등) 또는 남들이 쉽게 할 수 없는 일의 성취

5) 자아실현의 욕구: 결국 자신만의 소중한 경험이나 깨달음, 또는 예외적 순간이라고 부르는 것과 관계된 동기 과정의 최정상에 위치하는 이 욕구는 종교적 초월이나 사상 또는 사고의 세련화, 지고한 사랑, 권력에 의한 자아의 실현 등 큰 다양성을 포함하고 있고 또 예외적이거나 주어진 조건들을 뛰어 넘는다, 따라서 이러한 예외적 요소에 의해 특징화된 모든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슬로우가 밝히고자 하는 인간 욕구가 단계적으로 성취된다는 점이다. 우리는 충분히 먹고 마시고 나면 이러한 기본적 욕구가 충족의 정도에 따라 점차 약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욕구들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욕구는 하급 단계에서 상급 단계로 갈수록 강도가 약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하급 단계의 욕구일수록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나타나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급단계욕구의 실현에 만족하는 삶은 쉽게 충족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쉽게 행복해 질 수 있다. 하지만 보다 높은 차원의 욕구를 실현해야 한다면, 이러한 욕구충족은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 결국 마슬로우의 욕구단계설은 이러한 삶의 역동성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것이 삶에서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전제가 된다는 점이다.

## 4.2 삶의 질의 구성요소와 정책요소

이제 삶의 질의 개념을 스마트미디어 융합망으로 구축된 하나의 정보통신 도시(都市)에 두고, 이곳에서의 삶의 질을 보다 상징화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추상적인 삶의 질의 개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구성요소들의 파악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미디어융합시대 방송 통신이 가능한 스마트융합망으로 구축된 케이블 도시에서 생활은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하루가 시작되고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하루가 마감하는 삶으로 묘사된다. 이곳에서 인간은 “호모 페이버”(Homo-Faber)가 아니라 항상 커뮤니케이션하는 인간 즉 “호모 커뮤니쿠스”(Homo-comunicus)이다[13].

게다가 우리는 삶의 질이 환경적 요소들이나 환경에 부착된 일련의 요소들로써 개인의 욕구에 보상적이라는 것을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다. 다시 말해 주어진 환경에서 삶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데, 이것을 상징적 방정식의 형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12].

$$\begin{aligned} \text{삶의 질(Q.O.L)} &= K1 + K2 + K3 + K4 \\ & \text{환경의 풍부} \\ K1 &= \text{-----} \\ & \text{접근에 대한 일반비용} \\ K2 &= \text{환경의 안정성, 지속성} \\ K3 &= \text{안보, 신뢰도의 총계} \\ K4 &= \text{1/기다림의 총계 또는} \\ & \text{1/상대적 중요계수} \end{aligned}$$

[그림 2] 삶의 질의 구성요소들

결국 스마트미디어 융합 속에서 호모커뮤니쿠스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에서 삶의 질은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풍부와 이러한 환경에 접근하는데 소요되는 일반 비용 그리고 환경의 지속성(안정성)과 안보(정보 보안), 마지막으로 기다림의 요소들로 평가할 수 있다.

① 환경의 풍부(K1): 이것은 사회의 정보화와 융합화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의 플랫폼(platform)과 서비스 그리고 콘텐츠들에 의해 평가될 수 있는데, 사회의 정보화와 함께 접근할 수 있는 무한한 종류의 인터넷 서비스의 집합소 또는 콘텐츠나 서비스의 DB를 생각할 수 있고, 모든 정보가 스마트폰과 인터넷에 의해 제공되면서 환경의 일반적 풍부는 더욱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② 접근의 일반 비용(GC): 이것은 정보통신 콘텐츠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가능성으로 평가할 수 있는

데, 이것을 비용의 개념으로 표현하면 접근의 일반 비용(General Cost)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접근의 일반비용(GC)이란 콘텐츠나 서비스에 접근하는데 소요되는 물질적 혹은 정신적 모든 비용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정보통신 상품의 가격(P) 또는 상품의 구입비용이 있으며, 둘째 상품이나 서비스의 이용에 소요되는 시간(T), 셋째 접근에 필요한 교통비 또는 육체적 수고(W), 넷째 접근을 위해 소요되는 인식적 노력(Ψc) 그리고 다섯째 이러한 접근에서 발생하는 위험부담(Ψr)으로 설명된다.

$$\text{접근의 일반비용(GC)} = \text{Σ시간(T)} + \text{가격(P)} + \text{육체적 힘(W)} + \text{인식적 노력(Ψc)} + \text{위험부담(Ψr)}$$

[그림 3] 접근의 일반비용 법칙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이용할 경우, 우선 스마트폰 가입비와 매월 통화료가 필요하며, 단말기의 휴대 혹은 콘텐츠를 찾는 등의 육체적 수고가 전제되어야 하고, 또 인터넷에 접속하는데 인고(忍苦)의 시간이 필요하며, 복잡한 인터넷 콘텐츠를 인식하는 인식적 노력도 요구된다. 그리고 손가락 실수를 하면 잘 못된 서비스로 인하여 한참 동안 기다려야 하거나 혹은 가입한 사이트에서 나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 부담도 감수해야 한다. 이렇게 일반 비용이란 스마트폰 서비스에 접근하는 종합적인 비용을 의미하고 있다.

③ 환경의 지속성과 안정성(K2): 이것은 스마트폰의 전송속도 결합(4G이하)이나 장애로 인해 인터넷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전파장애로 송수신이 안 되는 경우 등에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최근에 발생한 지역적 정전(停電)사태나 블랙아웃(black-out)의 사태에서도 그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사실 스마트폰, 아이패드, IPTV 등 방송통신융합 미디어들은 시간적 제약이 없이 누구나 다양한 콘텐츠 서비스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 통신 기기들의 오작동과 고장, 블랙아웃 등은 한순간 차라리 없는 것만도 못한 상태로 만들어 인간의 삶을 쇠락(衰落)시킬 수도 있다.

④ 삶의 질의 본질적인 구성 요소인 안보의 개념

(K3): 이것은 분명한 두 관점을 나타낸다. 하나는 사물의 성질과 그것에서 유래하는 사고나 사건 또는 자연적 재해나 참변에 대한 관점이며,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 지적 적대자(공격)에 대한 인간의 투쟁 영역에 대한 관점이다. 첫 번째 관점은 스마트융합 사회의 신뢰도의 관점이다. 즉 이것은 먼저 망들의 복잡성에 부착된 엔트로피 그 자체와 관련된 부정적 요소를 의미한다. 하나의 망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그 망은 그만큼 위험이 크다. 특히 방송통신 기술을 기초로 하는 스마트융합 사회에서 기술적 결합과 위험도는 융합의 정도에 비례하고 있다. 최근에 일어난 일본의 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원전유출사태에서 인간이 얼마나 엔트로피의 위험 속에서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안보에 대한 다른 관점은 악을 행하려는 개인의 의도적 공격에 대한 방어의 개념이다. 다시 말해 타인에게 악을 행하려는 시도가 있는 한, 스마트융합사회의 유약성은 삶의 질을 결코 보장할 수 없다. 미국에서 일어난 911테러가 잘 보여주듯이, 사이버 테러나 인터넷 망의 절단, 사이버뱅킹을 통한 도난, 개인 정보의 불법다운로드, 등 방송통신 안전을 파괴하는 무수한 사례들은 도처에 있다. 더욱이 우리가 정보통신망 속에서 어떻게 감시당하고 있고, 또 우리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악용되고 있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다.

⑤ 시간적 세금(K4): 이것은 커뮤니케이션 행위들에 부담을 주는 기다림의 시간들이다. 이것은 개인의 결정과 각자의 행위 사이에 발생하는 시간의 낭비이거나 개인의 의도와 그 실현 사이의 시간적 벽으로 나타나는 것들이다. 이것들은 스마트융합과 함께 점점 더 많아지는 것들이고, 따라서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아주 강력하게 축소되어야 할 것들이다. 컴퓨터를 켜고 부팅될 때를 기다리거나 인터넷사이트가 열리기를 기다리는 시간들은 스마트융합사회가 극복해야 할 사회적 세금이다. 이 모든 기공(氣孔)이 많은 시간들은 구속적이고 불필요한 시간들이다. 모든 기다림의 줄에 서있는 시간들(년간 구조면에서 기다림은 60억 시간으로 평가됨)은 보다 바람직한 미래 사회를 위하여 세금으로 간주된다[4].

결국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욕구가 강화되는 스마트융합 사회에서 방송통신망들의 풍부성과 다양성 그



리고 이들의 질적 평가의 기준이 되는 이용의 가능성이나 기다림 또는 안정성이나 사고에 대한 저항성 등이 삶의 질의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삶의 질의 요소들을 통하여 방송통신정책의 요소들을 찾을 수 있는데, 이것은 환경의 풍부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플랫폼의 확산과 콘텐츠 개발 정책, 그리고 이러한 풍부한 콘텐츠에 접근하는데 소요되는 일반비용의 축소방안, 또 환경의 지속성과 안정성 차원에서 방송통신망과 서비스의 안정성과 지속성, 그리고 정보통신 안보와 보안의 측면에서 망의 다양화 정책, 개인정보보호정책, 음란폭력물로부터 청소년의 보호, 마지막으로 기다림의 세금을 줄이기 위한 초고속정보통신망과 광대역이동통신망의 보편적 이용정책 등을 살펴 볼 수 있다.

<표 2> 삶의 질의 구성요소와 방송통신 정책들

삶의 질의 구성 요소	방송통신 정책 요소	해당 정책부서
환경의 풍부	콘텐츠 개발 정책	방송통신위
가격(P)	통신 요금 정책	방송통신위
육체적 노력	단말기 개발 정책	지식경제부
인식적 노력	서비스 개발 정책	지식경제부
위험부담	정보보호정책, 청소년보호정책	방송통신규제정책(방통위)
안정성	서비스의 고도화 정책	방송통신위
기다림의 세금	초고속통신망, 이동통신망 정책	방송통신위
안전	통신보안, 사이버 테러 대응 정책	방송통신위

## 5. 방송통신정책 패러다임과 정책PR

### 5.1 소셜미디어 활용과 정책 패러다임

정보통신 선진국에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이러한 소셜미디어 활용이 주로 시민과의 소통, 실시간 정보의 공유, 공공서비스와 연계 그리고 21세기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도구로서 참여,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3]. 첫째 소통전략은 시민과의 일촌 맺기를 통해 정치리더와의 열린 대화로 시민의 높

은 만족과 신뢰를 확보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이것은 정책추진과 국정운영의 강력한 버팀목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공유전략은 다각적인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하여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데, 이것은 시민들에게 신속한 정보제공과 피드백 체계로 조기 대응 정책 수립과 솔루션 개발 등에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셋째, 연계전략은 24시간 시민과 최고의 접근성을 보장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접근성보장으로 공공서비스의 품질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은 생활 속에서 민의를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채널로써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마지막 참여전략은 시민들의 직접적인 정책에 참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참여를 통한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시민의 영향력을 증대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것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정치 전반의 다양하고 새로운 문화를 선도함으로써 21세기형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진 주요국들의 소셜미디어 활용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미국: 미국 오바마대통령은 정부의 투명화 방안에 대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클라우드소싱 도입을 적극추진하고 있다[1]. 오바마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시민들이 직접 정책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할 수 있는 '온라인시민보고서'(Citizen's Briefing Book)을 운영한 바 있다.

사실 지난 2008년 미국 대선을 필두로 지구촌 곳곳에서 소셜미디어 정치, SNS 선거라는 신조어가 유행했다. 이러한 소셜미디어는 미국에서 선거 캠페인 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에서 활용되고 있다. 오바마대통령의 '열린정부'라는 새로운 국정운영방식에 소셜미디어가 활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활발히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미국에서 많은 정치리더들이 이를 직접 모범적으로 실천·운영하고 있다. 특히 백악관의 'Stay Connected'는 8개의 SNS 사이트를 백악관 웹사이트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틀이다. 미국에서 소셜미디어의 대표적인 활용사례는 오바마대통령과 32명의 미국 주지사들의 트위터 운영을 들 수 있다. 또 캘리포니아주지사인 아놀드슈워제네거는 트위터를 통한 개인 이미지 개선과 친밀감 형성, 온라인혁신포럼(myidea4CA) 운영 등으로 소셜미디어를 정책추진에 활용하고 있다.

미국에서 소셜미디어의 정책적 활용은 갖은 테러의 대상국이자 넓은 영토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재난재해관리를 위해 수년전부터 실시간 정보제공과 확산을 위한 노력에서 찾을 수 있다. 이것은 소셜미디어와 지리정보기술, 위치기반기술, 최첨단 경보시스템, 모바일 인프라 등의 폭넓은 접목과 활용을 시도해 왔다. 특히 모바일 상용 경보 시스템 구축(DHS),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위기 대응체계 구축(뉴저지), 조직간 지원 협업 체계 구축(FEMA), 온라인 자선모금 활동 등에서 소셜미디어가 활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정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세심한 대민서비스의 품질개선을 위해 혁신적인 채널로써 소셜미디어를 도입하여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샌프란시스코의 “소셜미디어 센터” 및 “트위터콜센터”(311)를 들 수 있는데, 이곳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시민과의 접촉이 가능한 공공서비스 틀로써 높은 기대효과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② 영국: 2010년 5월 6일 치러진 영국총선은 영국 최초의 SNS 선거였다. 영국보수당과 자유민주당은 소셜미디어 선거 캠페인에서 노동당을 압도했다[7]. 이렇게 영국에서 왕실과 수상, 주요 정치리더들의 활발한 소셜미디어 활용으로 ‘소셜미디어 소통열풍’이 불고 있으나 지방까지는 아직 확산되지 못한 상태이다. 주요 정당들의 활발한 소셜미디어 활용 때문에 정치 전반의 새로운 소통문화형성에 대해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왕실에서는 세계 왕실 최초로 트위터를 구축하였으나 쌍방향적인 소셜미디어 활용과 소통 효과는 다소 미흡한 편이다.

③ 호주: 정부의 적극적인 주도아래, 소셜미디어를 통한 국가, 사회의 전방위적인 분야에 대한 과학적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공유시스템 및 관련 정책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래정부T/F의 ‘Emergency 2.0 Australia’ 프로젝트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전지역을 대상으로 웹2.0과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위기대응체계이다. 호주에서 소셜미디어는 주로 범죄 예방과 사회안전을 위한 시민과의 대화채널로 활용되고 있으며, 단순한 제보와 경보뿐만이 아닌 치안담당자와의 직접 대화채널로써 정책 홍보와 의견수렴 및 인식개선 등의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멜버른 경찰국의 트위

터 활용을 들 수 있는데, 멜버른 경찰국은 트위터를 통해 24시간 시민과의 정보공유와 참여 등을 통한 대민 서비스 품질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서구 주요국들은 소셜미디어 활용하여 국민과 소통을 통해 이미지 개선과 친밀감을 형성하면서 정부의 정책추진에 활용하고 있다[8]. 또 소셜미디어를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경보시스템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조직 간의 정보공유를 통한 협업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유비쿼터스적 PR전략으로써 24시간 시민과의 정보공유는 물론 이러한 정보제공을 통해 시민과 정부가 서로 연계하며 이러한 연계서비스를 통해 대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참여전략은 21세기 직접민주주의의 해결책으로서 정치과정과 행정에서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것은 정부와 시민이 협력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또 정책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협업이 이루어지는 ‘거버넌스’(governance)를 실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말로는 “협치”(協治)로 사용되고 있다.

## 5.2 방송통신 정책패러다임과 PR전략 방향

스마트융합시대에서는 ‘정책이 곧 홍보’다. 전문가들에 의해 제시되는 어려운 정책을 단순 명료하게 제시하여 국민적 호응과 참여를 이끌어 내야 정책이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네티즌이 여론을 만들고 정책을 생산하는 스마트융합시대에서는 정부와 시민이 하나가 되어 정책을 생산하고 정책을 소비하는 협업시대의 도래를 의미한다. 이것은 거버넌스적 정책 패러다임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과의 소통이 필요하고 정보의 공유와 연계 그리고 국민이 참여하는 정책 패러다임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스마트융합시대에서 정책 패러다임은 호모 커뮤니쿠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적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데 있다.

사실 삶의 질에 대한 개념은 역동적인 복지국가의 실현에 대한 패러다임이나 이데올로기로 사용될 수 있다. 특히 선진국들은 이러한 삶의 질에 대한 개념을 정치와 경제정책 수립에서 자주 활용하여 왔고,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개념은 모든 정책영역에서 점차 확산되어 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의 질에 대한 논의는 우리나라에서 자칫 복지포플리즘으로 비취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삶의 질의 개념을 단순한 복지적 차원에서 삶의 질 보다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써 개념 즉 “생산적 삶의 질”이나 “역동적인 삶의 질”의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생산적 삶의 질 또는 역동적 삶의 질에 대한 개념은 단순히 국가예산을 들여 어려운 사람을 돕는 복지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 이것은 우리사회의 어려운 사람이나 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의 질에 관여하고 있으며 또한 스마트융합처럼 우리 생활의 모든 곳에서 생산적으로 그리고 역동적으로 활용되어 사회를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즉, 스마트화하는 정책 패러다임이다. 스마트폰이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인터넷, TV, 네비게이션, 교통 및 버스나 열차 시간 안내, 각종 정보의 검색 서비스로 우리 생활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키듯이 삶의 질 또한 우리의 단순하고 정체적인 삶을 벗어나 보다 높은 단계의 욕구실현을 위한 노력과 창의력이 발휘되는 역동적인 삶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사회의 정보화 또는 스마트 융합 사회가 우리의 생활방식과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이에 대한 설문조사는 정보화가 여가시간을 증가시키고 또 생활의 윤택함을 가져다 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2]. 특히 삶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는데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화가 사생활이나 인간화에는 아주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정보화의 부작용에 대해서 정책적인 대안들이 마련되어야 하고 또 보다 바람직한 스마트융합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수단과 아이디어들이 방송통신의 정책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표 5>정보사회에 대한 인식과 삶의 질에 대한 기대

구분		매우 긍정 (+2)	긍정 (+1)	보통 (0)	부정 (-1)	매우 부정 (-2)	합계
생활 방식	개성 신장	19.5	17.5	20.5	21.5	20.8	100
	여가 증진	46.1	23.7	18.7	8.7	5.9	100
	생활 윤택	26.1	22.7	17.4	16.2	17.6	100
윤리	사생활 보호	10.3	13.7	22.5	23.7	29.8	100
	인간화	6.3	10.5	18.9	30.9	33.3	100
삶의 질	질적 향상	36.7	31.0	16.3	8.3	7.7	100
	계	67.7		16.3	16.0		100

(출처: 김신복, 정보화시대 교육 강화를 위한 교원연수)[2]

결국 미래의 스마트융합시대에서 삶의 질은 긍정적인 면을 강화시키고 부정적인 면을 최소화하는 역동적인 삶의 질이 되어야 한다. 방송, 정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모든 정책 수단들이 이러한 역동적 삶의 질의 향상에 맞춰져야 하고, 이러한 삶의 질의 패러다임이 경제성장은 물론 방송 통신의 콘텐츠 개발로 연결되고, 최상의 방송통신 서비스를 생성하고 제공하는데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삶의 질의 학자로서 일리취(Illich)가 지적한 것처럼[10], 진정한 인간의 삶의 질은 인간이 ‘구속’에서 벗어날 때 가능할 것이다.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만끽하면서 사는 삶이야말로 보다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스마트융합사회에서 방송통신 정책은 이러한 시간 공간적 자유를 확장시켜 줄 수 있는 방송통신 정책에서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결국 역동적 삶의 질을 향한 방송통신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으로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 6. 결론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이것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의사소통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 유무선 인

터넷의 활성화와 태블릿PC, 스마트폰, SNS서비스 등과 같은 다양한 모바일 기기의 보급으로 언제 어디서나 소통이 가능한 유비쿼터스(Ubiquitous) 환경이 구축되면서 이제 인간은 '호모 커뮤니쿠스', 즉 '커뮤니케이션하는 인간'으로 상징화된다. 다시 말해 스마트융합시대의 인간은 '눈만 뜨면 커뮤니케이션하는 인간'이 모델이며, 이러한 호모 커뮤니쿠스의 삶은 커뮤니케이션과 뿔레야 뿔 수 없는 삶의 과정이고, 삶의 질 역시 결국 커뮤니케이션의 질에 의해 평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스마트융합시대에서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은 재미(Entertainment), 교육, 정보획득, 설득(광고와 홍보, 이벤트), 소속감이나 소외로부터 탈출 등일 것이다[9]. 특별한 제한이나 장애 없이 이러한 욕구의 실현을 충분히 만족시켜주는 정책이 이러한 스마트융합시대의 방송통신 정책의 이데아(Idea)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욕구의 충족은 정책에 대한 평가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아주최고', '최고', '만족', '보통', '불만족', '최저', '아주최저' 등 리커트(Likert)의 7점 척도(Scales)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송통신정책에 의하여 실현되는 삶의 질의 향상은 단순한 국민의 보편적 복지수준을 향상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이것은 관련된 상품과 सेवा 그리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는 "역동적이고 생산적 삶의 질"(Dynamic & Productive Quality of Life)에 대한 정책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삶의 질을 위한 스마트폰 요금정책은 새로운 콘텐츠 기술의 개발과 스마트폰에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촉진할 것이며,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스마트혁명을 야기할 것이다. 더욱이 인식적 노력의 축소와 위험의 축소에 대한 서비스향상 정책은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창의적인 콘텐츠 그리고 편리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도록 촉진할 것이다. 또 기다림의 시간을 줄이기 위한 서비스 정책은 초고속통신망이나 초고속 플랫폼의 개발과 활성화를 촉진할 것이며, 환경의 지속과 안정을 위한 서비스 정책은 서비스의 고도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모든 정책들이 결국은 세계에서 가장 수준 높은 정보통신 국가로서 이미지를 촉진할 것이며, 또 이러한 이미지를 확립함으로써 방송통신 서비스와 관련 콘텐츠 및 상품에 대한 대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역동적이고 생산적 삶의 질에 대한 방송 통신정책

은 새로운 성장산업이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사회를 만들 것이며, 보편적 복지를 촉진시킬 것이다. 이것은 다양한 앱(App)을 비롯하여 스마트 영화, 스마트 교육, 스마트 방송, 스마트 광고 홍보, 스마트 영상융합, 등 새로운 영상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더욱이 이것은 점차 부담이 높아가는 통신요금의 부담을 낮추고 정보통신의 복잡계에서 발생하는 인식적 비용과 위험을 줄이고 또 기다림의 세금을 축소하여 21세기 선진 조국의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데 기초가 될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의 방송통신 수준은 이미 서구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고, 따라서 그동안 선진국 모델에서 배우고 활용했던 정책적 대안들은 별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이제는 우리도 나름대로 방송통신 정책에 대한 철학과 비전을 세우고 확립하여 정보통신 선진국으로 정체성을 확립할 때가 되었다.

## 참 고 문 헌

- [1] 김선배(2011), 스마트시민정당의 소셜미디어 활용 방안, 디지털정책연구, Vol.9. No.1(2011.02), P.49
- [2] 김신복(1992), 정보화시대 교육 강화를 위한 교원연수 프로그램개발 연구, 통신학술연구과제.
- [3] 박신주, 정원모(2010), 공공부문의 성공적인 소셜 미디어 도입 및 활용 전략, CIO리포트 24호, ITFind, 글로벌 IT트렌드, 한국정보화진흥원, 2010.09.03
- [4] 박성호(1994), 「21세기와 삶의 질」, 서울: 정보환경연구원, pp.184-193
- [5] 박성호(1998), 「텔레마티크와 정보화 정책론」, 서울: 박영출판사, pp.35-46
- [6] 박성호(2010), 소셜미디어의 등장과 정부홍보 방안, 한국PR학회 발표논문, 2010.04, pp.13-15
- [7] 조선일보, 트위터, 페이스북 한줄이 글로벌 선거판 바꾼다, 2010년 6월 14일자 A23
- [8] CIO리포트(2010), 공공부문의 성공적인 소셜미디어 도입과 활용전략, 한국정보화진흥원, IT Find, 제46호, 2010.09.03)
- [9] Balle, Barrat, et. all(2009), Media, Information et Communication, Paris: Ellipses Edition

pp.164-167

- [10] Illich I.(1973), La Convivialité, Paris: Ed du Seuil
- [11] Maslow A.(1970), Motivation and Personality, NY: Harper and Row
- [12] Moles A.(1980), "La qualité de vie", un mode d'analyse des composantes de la satisfaction attaché aur cadre de vie", Université de Strasbourg
- [13] Moles A.(1986), "Théorie structurale de la communication et société", Paris: Masson, pp.235-137.



## 박 성 호

1980 성균관대학교 불문과  
(문학사)

1986 프랑스 Strasbourg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커뮤니케이션학 석사)

1989 프랑스 Strasbourg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커뮤니케이션학 박사)

1996~현재 호남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

2009~2010 한국PR학회 회장

2005~2006 한국지역언론학회 회장

2004~2005 광주전남 언론학회 회장

1998~1998 PBC방송국 생방송 99.9 사회자

1993~1995 정보환경연구원(TERI) 원장

1990~1992 통신개발연구원(KISDI) 책임연구원

관심분야: 소셜미디어, PR전략, 스마트융합정책

E-mail: [shpark@honam.ac.kr](mailto:shpark@honam.ac.kr)